제11대 강릉시의회, 제299회 임시회를 끝으로 마무리

2022년 6월 21일~6월 24일(4일간)



제11대 강릉시의회가 지난 6월 24일, 제29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4년간의 의정활동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상임위원회(운영위원회·행정위원회·산업위원회)별로 심사한 ▲산불 피해자에 대한 강릉시 시세감면 동의안 ▲강릉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릉시 어르신 교통복지 지원 조례안 등 총 21건의 안건이 가결되었다.

이날, 본회의가 끝난 후 의원들은 재직기념패를 전달받고 기념사진을 촬영, 공식적인 11대 의정활동을 모두 마쳤다.



강희문 제11대 후반기 의장

아껴주신 시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난 4년 동안 우리 강릉시의회는 '소통하는 열린 의회, 신뢰받는 책임 의정'을 기치로 시민의 곁에서 더 낮은 자세로 소통하고 시민의 다양한 의견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였습니다. 오로지 시민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성원하고 아껴주셨던 시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인 사를 드립니다. 얼마 후 제12대 강릉시의회가 새롭게 출범하게 됩니다. 제12대 강릉시 의회는 가치 있는 변화와 신뢰 속에서 시민과 함께 새로운 미래를 향한 희망과 비전

을 펼쳐주시리라 믿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의회를 더욱더 아껴주시고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신재걸 제11대 후반기 부의장

시민의 삶에 온기를 더하는 12대 시의회가 되길

지난 12년의 의정활동을 돌이켜보면 보람과 아쉬움에 감회가 깊습니다. 저의 아쉬운 마음은, 새로운 12대 의회에 대한 응원과 기대로 채우고자 합니다. 12대 의회는 당리당 략을 떠나 시민에게 더욱더 가까이 다가가 소통하고 시민의 삶에 온기를 더하는 의회가 되길 바랍니다. 동료 의원님들, 강릉시 공직자들과 함께 더 나은 강릉을 만들기 위해 함께했던 시간과 마음은 소중하게 간직하겠습니다.

이제 시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 우리 강릉의 재도약과 의회의 발전을 위해 작은 힘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보내주신 성원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앞으로 더 좋은 인연으로 다시 만날 수 있길 바랍니다. 늘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최선근 제11대 전반기 의장

견제와 비판으로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 중요

저는 오늘 '행정이란 무엇인가? 의회는 무엇인가?'에 관해 16년간 의정활동에서 느꼈던 소회와 함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은 묘사할 수는 있으나 정의할 수는 없다'라는 말처럼 행정은 광범위합니다. 그만큼 행정은 시민의 일상이고 삶의 일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바로 공직자 여러분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꿋꿋하게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것은 자부심과 긍지, 사명감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또한, 모든 정책은 진정으로 강릉시민과 강릉을 위한 마음으로 결정하고 집행해야 합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시민안정과 지역발전을 위한 것이어야합니다. 그리고 집행부가 그렇게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견제와 비판을 통해서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이 바로 시의회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많은 분께서 보내주신 격려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고 시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늘 건승하고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안 제11대 전반기 부의장

시민 만족 도시로 거듭나길 기원합니다

1998년 첫 의정활동을 시작한 지 어제 같은데 강산이 두 번 넘게 바뀌는 시간을 함께 하였습니다. 이번 제12대 강릉시의회는 젊은 의회로 거듭났습니다. 새로운 리더십은 지성, 설득력, 지구력, 자제력, 지속적인 의지라는 다섯 가지의 자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새로운 리더십으로 12대 의회는 변화와 혁신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 일방통행 밀어붙이기식 관행을 벗어나 견제와 균형이라는 의회 본연의 기능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또한, 더 역동적으로 미래가치를 일궈내 환동해 중심도시를 넘어 시민 만족 도시로 거듭나길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랜 시간 지지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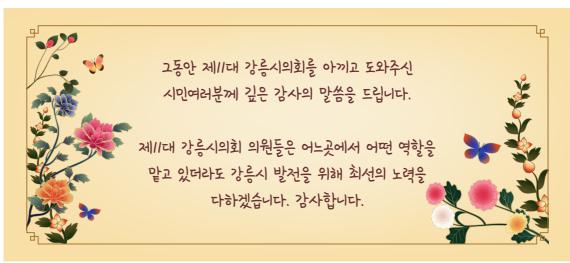












새로운 시작! 제12대 강릉시의회



